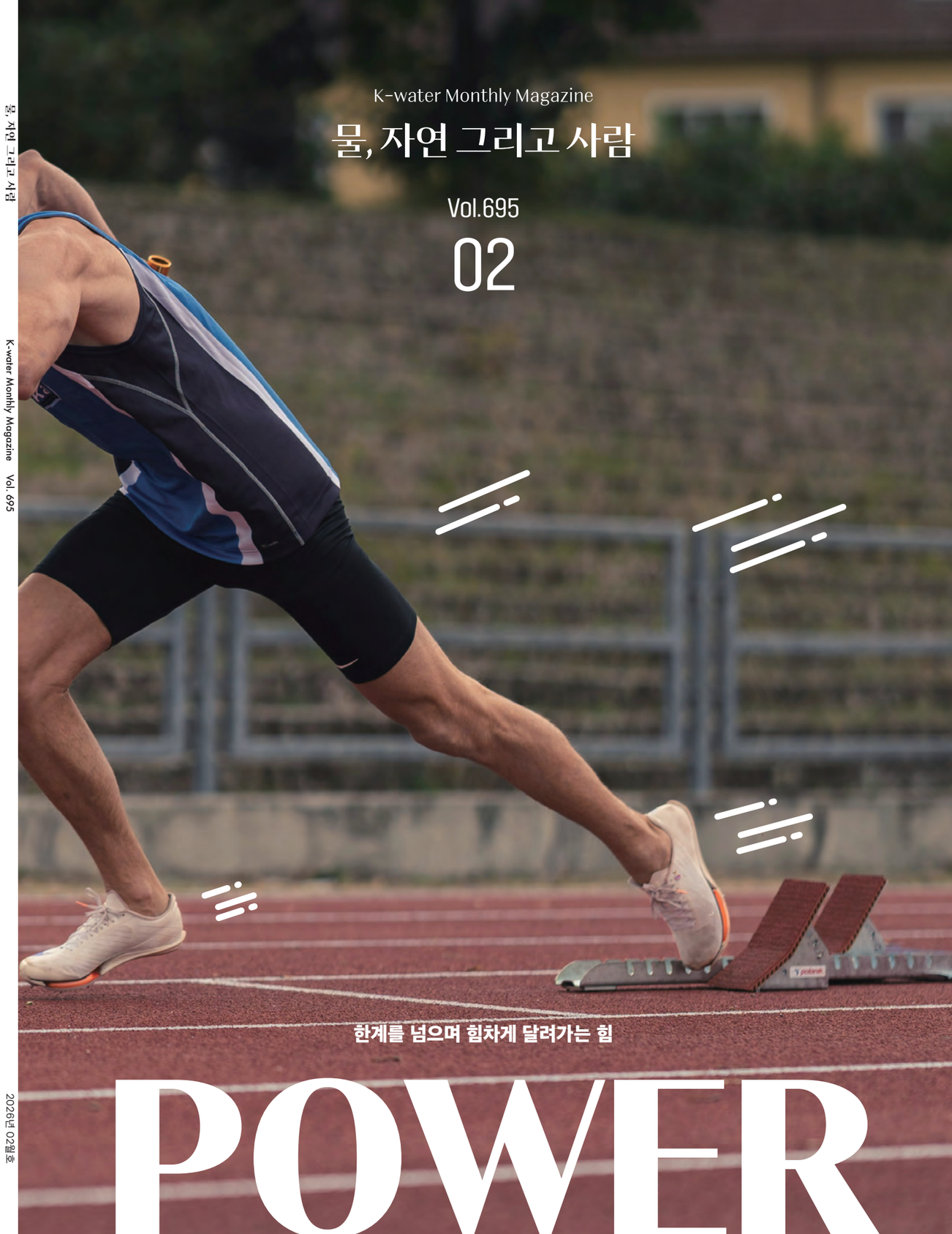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5

2026년 02월호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5
02

한계를 넘으며 힘차게 달려가는 힘

POWER

THEME 1

힘

2월호의 키워드는 ‘Power’입니다.
여러분은 ‘Power’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힘’입니다. ‘힘’이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한 걸음씩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EME 2

경쟁력

두 번째 테마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야기가 하나의 힘이 되어,
지금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





06. 월간 수토픽
세계가 주목한 K-물산업의 파워
CES 2026

12. Gallery
한국다움에서
피어나는 힘

16. Theme Road
K-컬처의 중심지, 서울

22. Travel Guide
세계가 인정한 K-건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4. Voice on Road
K-패션의 힘은 '새로움'에 있다
이청청 디자이너

28. The Kit
홈트로 쌓는 나만의
Power

30. Taste Note
해외에서 난리난
K-푸드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6년 2월 2일 | **통권** 695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경쟁력





32. Theme Prism
나를 충전한 Power의 정체

34. Opinion
경쟁보다 과정,
승패보다 스토리

36. Talk with
파워를 다시 정의한 '육각형 선수'
장은실 선수

40. 수타벅스가 간다
경남 서부를 책임지는 물관리 드림팀
경남서부권지사

44. Water & Tech
한국형 물관리 Digital Twin의 심장
K-series

48. Newsroom

52. Water Lounge
자연이 알려준 힘의 방식
우포늪

56. Monthly Issue
눈의 실종, 설악의 실종

58. Water Tales
바다의 신이 보여준 힘
뇨르드

60. #알고리즘

61. 이벤트 안내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글. 편집실 사진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각 기업 제공



세계가 주목한 K-물산업의 파워
CES 2026

전 세계 혁신 기술이 총집합하는 글로벌 축제 '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CES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AI 물관리'로 세계의 시선을 붙잡았다. CES 2026 현장에서 K-물산업의 파워를 보여준 한국수자원공사 전시관을 소개한다.



AI 혁신 기술로 강화된 K-물산업의 경쟁력

지난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6'이 열렸다. '혁신가들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160여 개국, 4,1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유레카 파크에 'K-water관'을 마련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핵심은 'AI 물관리'다.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60년간 축적한 운영 경험과 하루 74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AI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성과 또한 뚜렷했다. 공공 부문의 AI 전환 역량과 물산업 생태계 육성 경험이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맞물리며 참가기업 21개사 중 1개 기업이 최고혁신상, 6개 기업은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총 8,900만 달러(약 1,300억 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이 520여 건 성사되며, CES가 수출로 직결되는 비즈니스 무대임을 재확인했다.









CES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한 K-물산업의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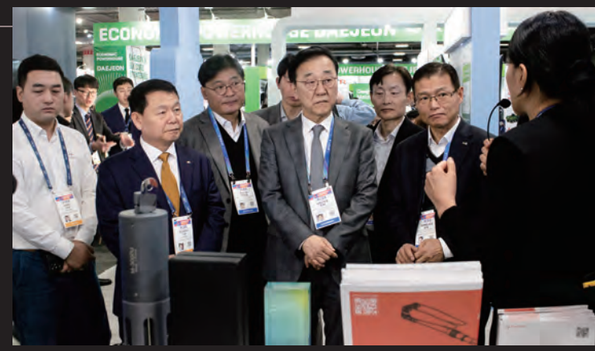


2026



최고혁신상

세계 무대에서 증명한 드론 기반 물기술
둠둠



둠둠은 어떤 회사인가요?

둠둠은 드론 기반 환경 솔루션을 개발하는 드론 기술기업입니다. ‘Hydro Hawk-5G Smart Water Sampling Drone System’을 중심으로 수질 자동 채수와 원격 수질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원격 제어, 정밀 채수 기술을 결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역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며, 수자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위험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채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제 환경에서 제주 현장 드론에 임무를 부여해 원격으로 채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설정 지점에서 채수기의 개폐를 정밀 제어해 수질 혼탁 없이 목표 수층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자동화를 통해 조사 효율과 데이터의 반복·재현성도 높였습니다.

CES 2026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소감은?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은 저희 기술이 단순한 드론 기술을 넘어, 수자원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환경·공공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낍니다.

수상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Hydro Hawk-5G Smart Water Sampling Drone System’은 5G 기반 드론으로 원격 자동 채수를 수행하고, 수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질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기존 수질 조사는 인력 중심이라 현장 접근이 필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와 시간·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드론 기반 자동 채수 기술과 실시간 통신을 결합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실증 사례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증 사례는 없으나, 향후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댐·저수지 정기 수질 조사, 접근이 어려운 구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데이터 확보, 광범위 수역 관리 등 한국수자원공사 의 수질 관리 업무와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상

세계가 인정한 AI 로봇
모빌리오





____ 모빌리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모빌리오는 2020년에 창업한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 기업입니다. 로봇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술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로봇의 '몸체'뿐 아니라 '두뇌'까지 개발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본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주와 일본 나가사키에 해외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____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수상 제품인 네비게이트 X(NaviGate X)는 사족보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밀 제어와 산업 현장의 자율 점검을 통합 수행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로봇 솔루션입니다.
로봇에 탑재된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며, 복잡한 시설 내부에서도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기술로 자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웹 기반 콘솔 하나로 여러 대의 로봇과 센서를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비게이트 X는 로봇 도입이 까다로웠던 건설 현장, 중공업, 공장 및 물류 센터 등에서 PoC(기술 검증)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글로벌 기업 C사를 포함한 현장에서 실제 운용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 환경의 점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운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성과를 인정받아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____ 한국수자원공사 협력기업으로서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전시·사업화·실증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술 소개와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았고, CES 2026 유레카 파크에 마련된 'K-water 공동관' 덕분에 안정적인 전시 공간과 홍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 운영부터 바이어 상담까지 현장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혁신상

분산형 수소 에너지로 혁신하다
하이랩





____ 하이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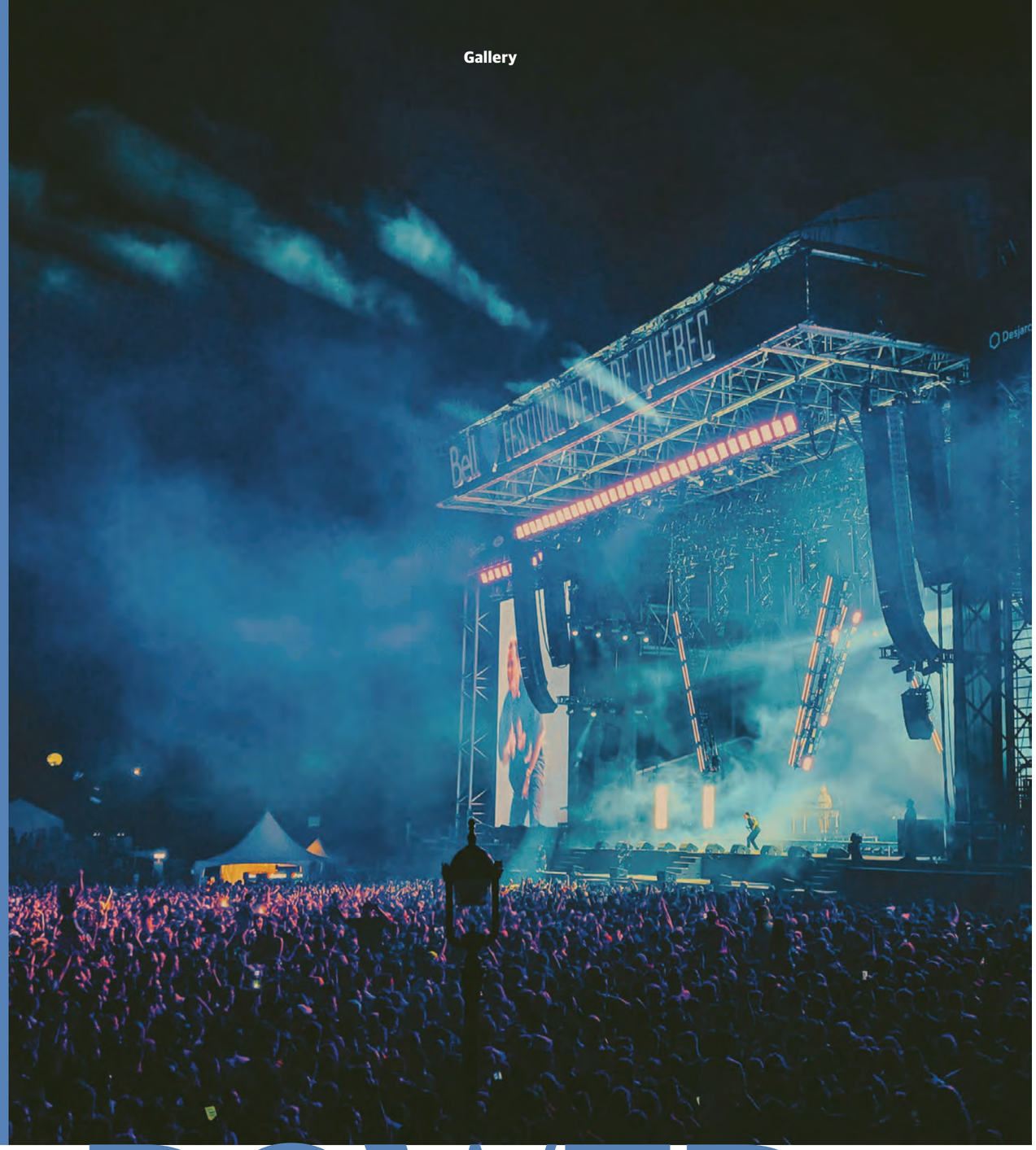
하이랩은 차세대 수소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한국·독일·미국 3개국에서 24명의 팀원이 함께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인프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합니다. 기후변화와 재난 빈발, 에너지 안보 불안정성이 커진 시대에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스스로 생산하고 활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HyDee(Hydrogen will set you free)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____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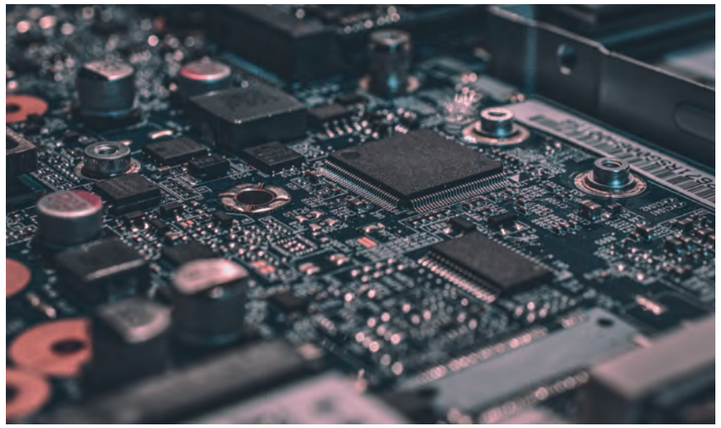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HyDee'입니다. 송전선·소음·유류 수급 부담 없이 필요한 곳에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으로, 수소 연료전지 스택·전력 변환·열관리 시스템을 통합 패키지로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혁신은 복잡한 기술을 단순한 사용자 경험으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HOASIS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들고(전기분해),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어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연료전지) 순환을 소규모·현장형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대규모 플랜트 대비 설치 조건이 용이하고, 물이 흐르는 곳 어디서든 설치하여 생산한 수소를 HyDee에 공급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____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은 저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과 에너지는 문명의 두 축이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큰 시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HyDee와 HOASIS가 빛을 발하는 조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수질 모니터링 현장에서 전원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HyDee를 활용하면 정밀 분석 장비를 장시간 가동하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한파·폭염 등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둘째, 원격지 시설의 에너지 독립입니다. HOASIS로 수력 기반 수소를 생산하고 HyDee에 공급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태양광과 결합하면 재생에너지 자립 모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댐·수로 등 주요 수계에 HOASIS를 설치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인근 수처리 시설 전원 공급 및 지역 수소 충전소 연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확장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POWER



한국다움에서 피어나는 힘

밤을 지새운 연습실의 숨결이
무대 위 한순간의 빛이 될 때,
우리는 K-POP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온 힘을 만납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집중력이
세계의 신뢰로 이어질 때,
K-기술은 증명합니다.
힘이란 속도가 아니라
축적된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세계에 가장 한국적인 파워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POWER OF THE WORLD



어쩌면 진짜 힘은
더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힘은 그렇게 소리 없이 자라
우리를 다음 무대,
다음 이야기, 다음 가능성 앞에 세워 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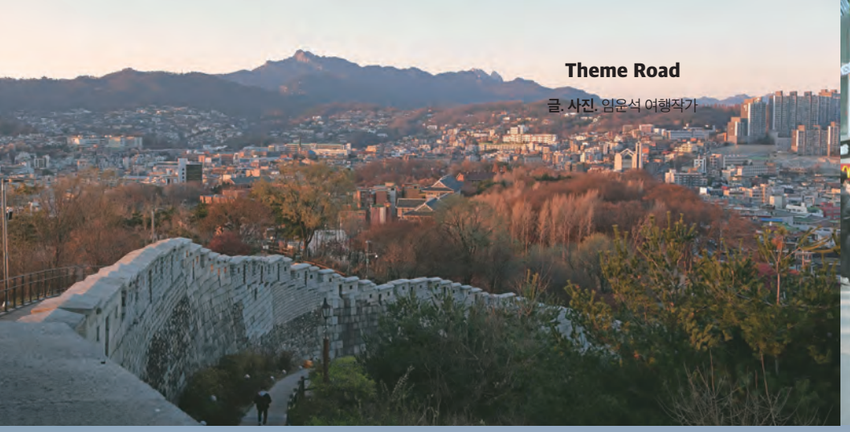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힘을 키워가고 있나요?





글, 사진. 임오석 여행작가











익숙한 풍경이 낯선 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여행의 묘미는 시작된다. K-콘텐츠의 배경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심코 지나치던 서울의 일상이 글로벌 팬들에게는 성지 순례와도 같은 특별한 경험이 된다.

K-컬처의 중심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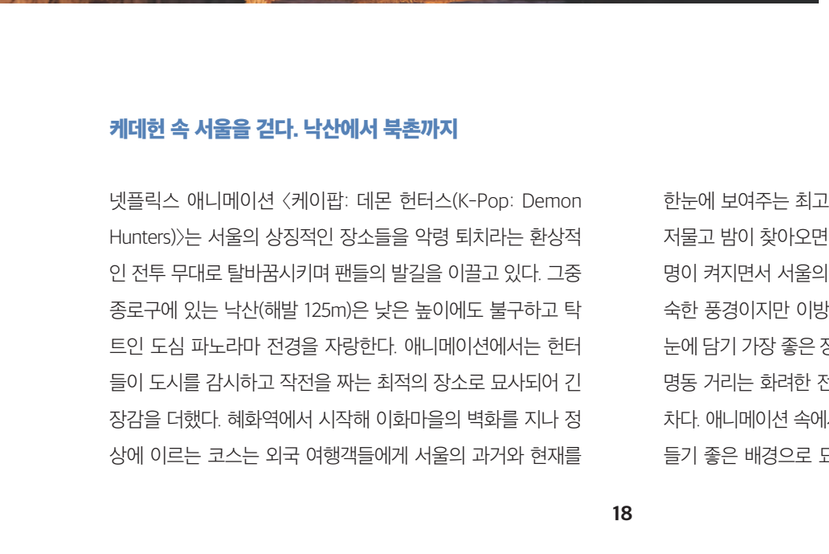












명동성당

A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T 02-774-1784

북촌한옥마을

A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T 02-2148-4161

망원시장

A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2층
T 02-335-3591

케데헌 속 서울을 걷다. 낙산에서 북촌까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악령 퇴치라는 환상적인 전투 무대로 탈바꿈시키며 팬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그중 종로구에 있는 낙산(해발 125m)은 낮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탁 트인 도심 파노라마 전경을 자랑한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헌터들이 도시를 감시하고 작전을 짜는 최적의 장소로 묘사되어 긴장감을 더했다. 혜화역에서 시작해 이화마을의 벽화를 지나 정상에 이르는 코스는 외국 여행객들에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최고의 산책로로 꼽힌다. 특히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은은한 황금빛 조명이 켜지면서 서울의 밤을 낭만적으로 물들인다.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방인들의 눈에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담기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힌다.

명동 거리는 화려한 전광판과 각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늘 활기차다.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러한 번잡함이 오히려 악령이 숨어들기 좋은 배경으로 묘사되어 긴박한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오늘날 명동은 K-뷰티와 K-푸드를 상징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여행객들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거리에서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즐비한 로드숍과 글로벌 브랜드 사이를 누비다 보면, 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번화가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 바로 명동성당이다. 1898년에 완공된 이 성당은 한국 최초의 고딕양식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명동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성당 일대는 경건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깃들어 있어 잠시 숨을 고르며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북촌한옥마을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양반층 주거지로 600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북촌한옥마을은 헌트리스가 기와지붕 액션을 펼쳤던 곳이다. 고즈넉한 한옥과 현대적인 액션의 조화를 상상하며 좁은 골목길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마을을 걷다 보면 양반 가옥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작음에 놀라게 된다. 이유는 일제강점기 주택경영회사들이 북촌의 대형 필지와 임야를 매입한 뒤, 그 터에 지금과 같은 중소 규모의 한옥을 대단위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므로 조용히 관람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명소

망원시장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의 영향으로 이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우뚝 섰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한국인의 실제 삶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로컬 지향형' 여행에 열광하며, 특히 한국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식문화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져 시장 안은 언제나 활력이 넘친다. 1970년대에 형성된 망원시장은 골목을 따라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지금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후 2000년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개통되자 유동 인구가 급증했고,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합리적인 가격과 개성 있는 메뉴를 갖춘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인근 '망리단길'



형성으로 이어졌다. 시장에서 먹거리를 즐긴 뒤 망리단길의 독립서점, 빈티지 소품숍, 감각적인 카페를 탐방하거나, 약 1㎞ 거리에 있는 망원한강공원에서 산책과 피크닉을 즐겨도 좋다.

서울의 11개 한강공원 중 외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이 찾는 곳은 단연 여의도 한강공원이다. 주변의 쇼핑 및 관광 인프라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거대한 풍선 모양의 비행 기구인 '서울달'이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열기구와 달리 헬륨가스를 이용한 계류식 가스 기구인 서울달은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경로 이탈 위험 없이 안전하게 공중 부양을 즐길 수 있다. 약 15분간 진행되는 비행은 130m 상공에서 탁 트인 도심 풍경을 만끽하고 인증사진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발아래로 펼쳐지는 한강공원과 국회의사당, 고층 빌딩 숲이 어우러진 파노라마는 상상 그 이상의 황홀함을 선사한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도봉산까지 한눈에 담기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여기!

서울 강남의 마천루 숲 사이에서 천년의 정적을 지켜온 봉은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명소다. 봉은사의 진정한 매력은 최첨단 현대 도시와 유구한 전통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미에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봉은사의 상징은 단연 23m 높이의 위용을 자랑하는 미륵대불이다. 빌딩 숲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불상은 빼어난 곡선미를 뽐내며, 각박한 도심을 따뜻하게 보듬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경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판전(板殿) 또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이곳에는 조선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가 타계하기 사흘 전에 남긴 '판전' 현판이 걸려 있다. 기교를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한 이른바 '졸박(拙樸)한 서체'는 추사 예술의 최정점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도심 속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경험하고 싶다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빌딩 숲의 소음에서 벗어나 명상과 다도를 즐기며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기에 제격이다.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에서 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미술관의 뒤를 이어 세계 3위권에 진입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명실상부한 'K-컬처의 근원지'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이곳에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핵심 소장품으로는 '사유의 방'과 '경천사 십층석탑'이 꼽힌다.

'사유의 방'은 삼국시대에 제작된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독립된 공간에 나란히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깊은 사색과 평온함을 선사한다. 또한, 1층부터 4층까지 탁 트인 중앙 홀을 관통하며 위용을 자랑하는 고려 말의 '경천사 십층석탑'은 그 정교한 조각 기술로 시선을 압도한다. 국보로 지정된 이 두 걸작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뿌리와 정수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물관의 인기는 전시를 넘어 문화상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뮷즈(MUZ)'는 박물관 오픈런과 품절 사태를 일으킬 만큼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한국의 미를 일상 속 소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은 롯데월드타워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수직 도시이자 복합 문화 공간이다. 특히 지상 500m 상공에 자리한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외국 여행객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필수 코스이다. 발아래로 펼쳐지는 아찔한 유리 바닥 스카이데크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스카이브릿지 투어는 K-스릴의 정수로 꼽힌다. 타워 하층부의 롯데월드몰은 최신 K-트렌드를 반영한 팝업 스토어와 맛집들이 즐비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인근 석촌호수의 고즈넉한 풍경과 마천루의 광채가 어우러진 야경은 서울의 첨단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선사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T 02-3780-0561~6

봉은사

A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T 02-3218-4800

국립중앙박물관

A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2077-9000

롯데월드타워

A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T 02-3213-5000

글. 편집실 사진 제공. 각 지자체 제공

세계가 인정한 K-건축

건축물은 한 시대가 가진 힘의 총합이다. 시간을 풍파를 견뎌낸 벽에는 세월이 담겨 있고, 눈비를 막아낸 지붕의 풍채는 당당하다. 청동기에서 신라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오늘까지 이어진 우리의 역사와 지혜는 그렇게 건축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한국 건축의 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불국사

불국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다.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이상 세계를 돌과 목재, 공간의 질서로 구현한 사상적 구조물에 가깝다. 불국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국가 차원의 불교 이념을 건축으로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의 주요 건물과 석조 유물은 석굴암과 함께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다보탑과 석가탑은 한 공간에서 형식과 의미가 다른 불탑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다. 불국사는 종교 유산을 넘어 신라의 정치·철학·미학이 집약된 종합 문화유산으로, 너른 품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한다.

A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H 09:00~18:00
F 무료(불국사 박물관 별도 / 주차 2,000원)

유 네 스 코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는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공간을 대하는 방식이 함께 담겨 있다. 1543년 소수서원의 전신이 되는 '백운동서원'이 지어진 뒤, 명종으로부터 '무너진 교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하라'는 뜻의 '소수'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현재까지 불리고 있다. 소수서원은 지어진 후 전국 서원의 모델이 되었고, 유교 교육과 지방 지식인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건축·교육·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유교 문화 공간의 원형, 교육 공간이자 학문을 강론하던 장소인 강학당과 사당인 사우, 담장과 숲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치는 배움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9년 다른 서원들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A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H 09:00~18:00(동절기 9:00~17:00)
F 어른 2,000원 / 청소년 1,330원 / 어린이 660원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방어를 위한 성'이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선다. 조선시대 정조가 구상한 이 성곽은 군사 시설이자 행정 도시였고, 백성을 위한 생활 공간이기도 했다. 장안문과 팔달문을 잇는 성벽 위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 지형을 받아들인 유연한 설계가 눈에 들어온다. 수원화성은 1794년부터 1796년까지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으며,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축성으로도 유명하다. 동서양 성곽 기술을 결합한 구조는 조선 후기 개혁 정치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화성 축성을 계기로 한국 근대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일컬어진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A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H 09:00~18:00
F 어른 1,000원 / 어린이 500원

강화 고인돌 유적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거대한 바위를 세워 삶과 죽음, 공동체의 기억을 남겼다. 영국 스톤헨지를 떠올리게 하는 강화 고인돌 유적은 설명보다 먼저 '돌' 그 자체로 시선을 붙잡는다. 압도적인 돌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그 돌을 옮겼을 사람들의 시간이다. 강화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1,0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고인돌 문화의 중심지인 강화 지역의 고인돌은 탁자식 형태가 많아 권력 구조와 사회 조직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화·고창·화순 고인돌 유적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함께 등재되었으며, 선사시대 장례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A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30-2
H 상시
F 무료



세 계 문 화 유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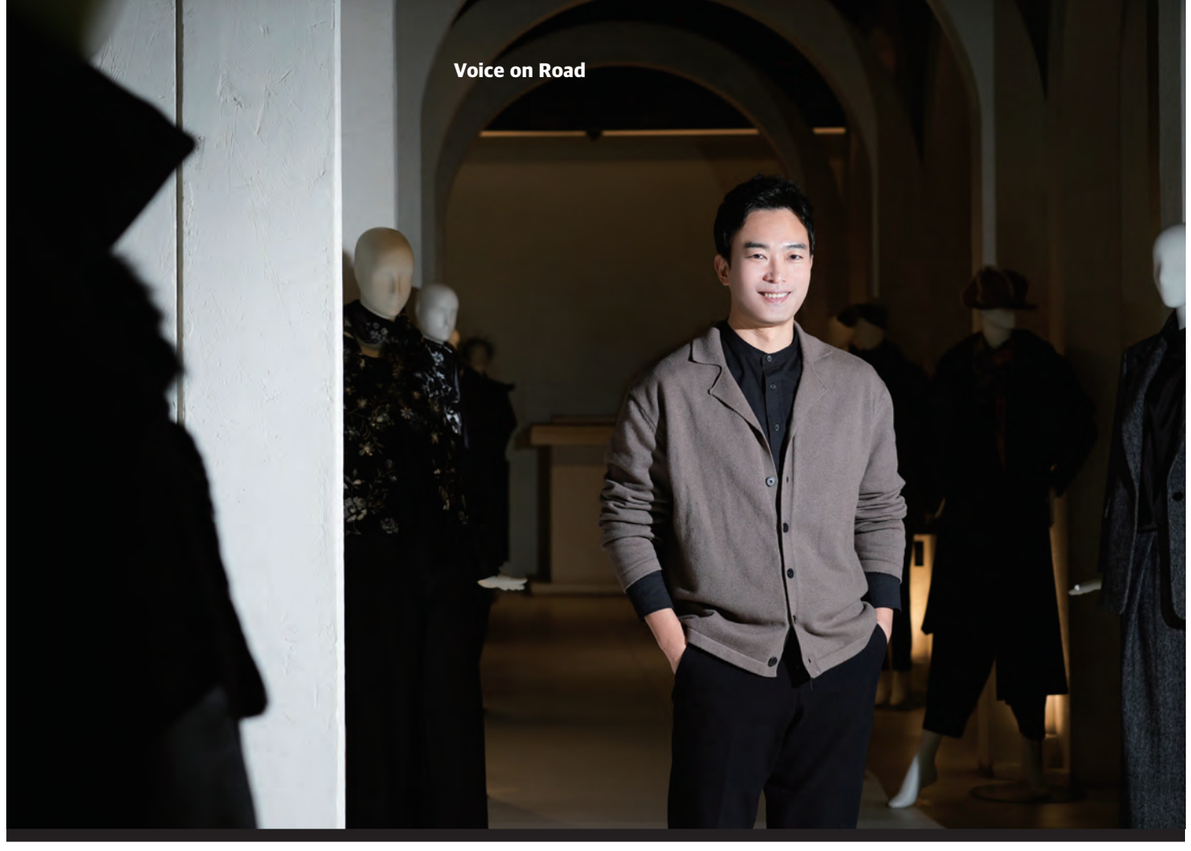
글. 강지형 사진. 황지현



K-패션의 경쟁력은 '한국적'이라는 수식보다, 세계가 원하는 새로움을 빠르게 감지하고 자기 언어로 번역해 내는 감각에서 나온다. 트렌드를 읽는 속도,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손끝, 그리고 무대 위에서 서사로 완성하는 연출력까지. 이청청 디자이너가 글로벌 패션위크를 오가며 확장해 온 존재감은 K-패션이 지금 왜 주목받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K-패션의 힘은 '새로움'에 있다

이청청 디자이너



디자인으로 증명한 글로벌 브랜드 론칭

손끝으로 원단의 결을 읽고, 머릿속으로 실루엣의 균형을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확한 재단, 한 땀의 스티치로 작업대 위에서 완성한다. 이청청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 과정은 이토록 정교하고 치열하다. 그를 패션디자이너의 길로 이끈 건 단순했다.

"내 손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꿈이 컸고, 방향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패션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직접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입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호기심이 시작이었죠."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교에서 아트&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2010년 런던패션위크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2013년 '라이(LIE)'를 론칭한 이후, 그의 시선은 줄곧 세계를 향했다. 뉴욕, 파리, 런던, 중국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패션쇼를 선보이며 무대를 넓혔다. 그에게 무대는 처음부터 '글로벌'이었다.

"2012년 여름이었죠. 파리 'Who's Next' 전시회에 참가해 2013 S/S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선주문 방식으로 생산이 이어졌어요. LIE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해외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후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로 세일즈를 이어갔고, 해외에서 그의 이름이 빠르게 알려졌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4대 패션위크에서 K-패션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디어'의 힘

이청청 디자이너에게 패션은 운명과도 같았다. "패션 디자인에 매료된 데는 아버지(이상봉 디자이너)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의 패션쇼장에서 느꼈던 그 심장 뛰는 에너지를 잊을 수 없거든요. 무대 위 라이브 쇼가 주는 드라마틱한 감동을 보며 '패션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거장의 아들로 시작한다는 것이 늘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내 1세대 디자이너 이상봉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때로 무거운 부담이 되어 그를 눌렀다. 하지만 그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쇼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이 세상에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가 아버지 곁에서 배운 디자이너의 자세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노력, 그리고 열정이다.

"물론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간극을 메우는 건 결국 노력과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서 가장 빛나는 건 '아이디어'예요. 디자인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창의성이야말로 디자이너가 가진 가장 큰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K-패션이 세계적인 파워를 갖는 이유

요즘 이청청 디자이너는 '한국적인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다만 전통 요소를 무조건 모티프로 가져오진 않는다. 패션은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신 방식이 재미있다. 외국인의 눈에는 낯설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온다. 한글, 한복의 형태처럼 '낯선 언어'와 '낯선 실루엣'을 동시대 감각으로 번역해 새로움을 더한다. 옷이야말로 '나를 표현하는 가장 자유로운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 라이를 'Life Is an Expression(인생은 표현이다)'로 정의한 이유도 여기 있다. K-POP과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K-패션도 주목받고 있다.







LIE X INSOOTH

"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죠. 한국 브랜드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 F/W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견고하고 참신한 'GLACIER(빙하)' 컬렉션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INSOOTH(인수스)'와의 합작이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 하기보다, 잘하는 세계와 손잡는 방식이다.

K-패션의 파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유행이 아니다. 세계가 원하는 '새로움'을 읽는 속도, 문화와 트렌드를 번역하는 감각. 이청청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은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K-컬처의 흐름 속에서 K-패션은 더 멀리 갈 준비를 이미 마쳤다.

글. 편집실 그림. 이혜리

홈트로 쌓는 나만의 Power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서는 일은 생각보다 큰 결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 안에서도 충분히 땀을 내고, 근력을 깨우며,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공간 부담은 줄이고 운동 효과는 확실히 높인 홈트 기구들로, 우리 몸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보자.

무한 반복 제자리 걷기

스텝퍼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기 망설여질 때, 집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스텝퍼다. 제자리에서 발판만 번갈아 밟아주면 끝.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체중과 다리·엉덩이 힘을 모두 써야 하는 꽤나 본격적인 운동이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동시에 이뤄져 실제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하체 근육을 고르게 자극해 주고, 상하 수직형·트위스트형·좌우형 등 종류도 다양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덤벨이나 스트레칭 밴드를 더하면 상체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운동 효율은 한층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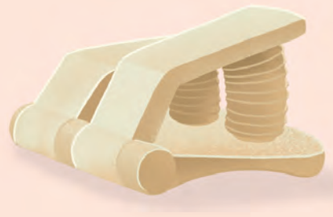


고요하게 달리는 유산소

무소음 실내자전거

조용한데 운동은 제대로 하고 싶다면 무소음 실내자전거가 제격이다. 페달을 밟아도 소음이 거의 없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탈 수 있다.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에, 크기도 콤팩트해 집 안 어디든 부담 없이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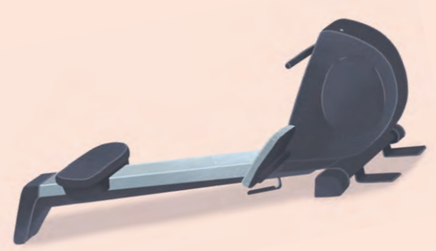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답게 하체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특히 강도 조절이 쉬워 운동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각자 페이스에 맞춰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 좋아하는 영상이나 음악을 틀어두고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운동 시간이 슬쩍 늘어난다.



노를 젓는 전신 운동

로잉 머신

로잉 머신은 말 그대로 노를 젓는 동작을 구현한 운동 기구다. 하체로 밀고, 코어로 버티고, 상체와 팔로 당기는 동작이 한 번에 이어지며 전신 근육이 골고루 동원된다. 허벅지와 엉덩이, 등과 팔, 복부까지 빠짐없이 사용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도 운동 효율이 높은 편이다. 관절에 무리가 비교적 적어 체력 관리용으로도 좋고, 일정한 리듬 덕분에 호흡과 페이스를 맞추며 꾸준히 하기에도 부담이 덜하다.



팔굽혀펴기 운동 효과 Up

푸시업 바



푸시업 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팔굽혀펴기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다. '푸시업 그립'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닥에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면 손목이 꺾이기 쉬운데, 푸시업 바를 사용하면 손목 각도가 완화돼 부담이 줄어든다. 손이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면서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가슴·어깨·팔 근육 자극도 확실해진다. 손목은 지키고, 운동 효율은 챙기고 싶다면 하나쯤 곁에 두기 좋은 홈트 아이템이다.

홈트할 때 도움이 되는 루틴

1. 짧게라도 매일, 루틴을 만든다

길게 운동하려고 하기보다 10~15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루틴이 체력과 힘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횟수보다 자세를 먼저 챙긴다

동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속도를 늦추고 자세에 집중하면 부상 위험은 줄이고 운동 효과는 높일 수 있다.

3. 회복까지 포함해야 진짜 운동이다

운동 후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은 다음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물 마시기와 수면 관리까지 챙겨야 홈트를 오래 이어갈 수 있다.

글. 최행좌

우리가 일상처럼 즐겨온 음식들이 이제는 'K-푸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식탁에 오른다. 익숙해서 몰랐던 맛의 저력, 그리고 국경을 넘은 한국 음식의 오늘을 살펴본다.

맨해튼에 난리 난 K-소울푸드

돼지국밥

국밥 이야기에 돼지국밥이 빠질 수 있을까. 돼지를 푹 우려낸 육수에 삶은 고기를 얹고 밥을 말아 먹는 한 그릇은 한국인의 허기를 넘어 마음까지 달래주는 소울푸드다. 그리고 이 익숙한 국밥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 뉴욕 한복판에서 주목받고 있다.

맨해튼에 문을 연 '옥동식'은 2022년 말 진출 이후 단 하나의 메뉴, 돼지곰탕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오픈 1년 만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뉴욕 요리'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뉴욕에서 이 돼지국밥이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밥을 뉴욕식으로 세련되게 구현했기 때문이다. 맑고 투명한 육수는 기름지지 않아 부담이 적고, 담백하지만 깊은 맛이 난다. 얇게 썬 돼지고기와 토렴한 밥은 식감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아 완성도가 높다. 결국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정갈한 한 그릇'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뉴욕이 반한 결정적 포인트다.



할랄 문화에 부는 K-푸드

생선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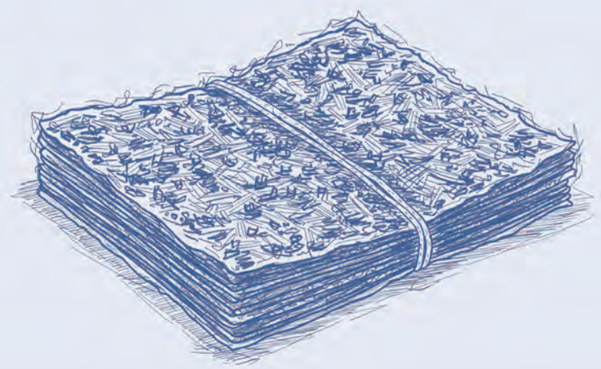
두툼한 속살과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는 생선구이는 무슬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미 '검증된 한식 메뉴'다. 돼지고기와 술을 피하는 할랄(Halal) 식문화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한식당 앞에 줄이 늘어서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찜이나 구이 위주의 조리법, 그리고 비늘이 있는 생선이 허용되는 할랄 원칙까지. 생선구이는 이슬람 식문화와 의외로 궁합이 좋다. 특히 노릇하게 구워낸 생선은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의 대비가 살아 있고,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자연스럽게 손을 부른다.

생선구이는 조기, 열기, 가자미, 서대, 꽁치, 고등어, 삼치까지 계절에 따라 주인공은 바뀌지만, '바삭한 겉, 촉촉한 속'이라는 공식은 늘 같다. 갓 구운 생선 살을 발라 흰쌀밥 위에 올려 먹으면 설명은 필요 없다. 밥 한 공기는 순식간, 결과는 '맛없없(맛이 없을 수 없다)'이다.

K-김의 진가

곱창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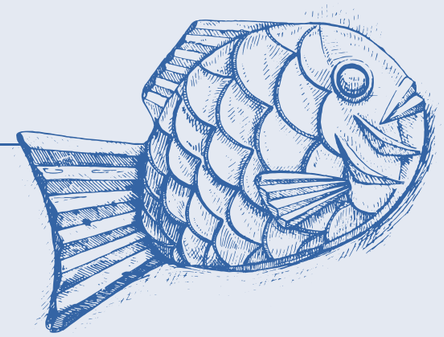
한국인의 밥상에서 늘 조연 같던 김이 요즘은 주연으로 나서고 있다. 김은 국내 수산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수출 효자'를 넘어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K-컬처의 확산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며 김의 인기는 국경을 가볍게 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김 수출액은 2025년 11월 20일 기준 10억 1,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푸드 열풍 속에서 김의 존재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은 크게 일반김, 돌김, 그리고 곱창김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곱창김은 잇바디돌김으로, 엽체가 길고 구불구불하게 자라 곱창을 닮은 모습에서 이름이 붙었다. 전남 진도·해남·무안·신안 등 청정 해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곱창김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많아 질감은 다소 거칠지만, 풍미만큼은 단연 압도적이다. 조미를 하지 않고 살짝만 구워도 바삭한 식감과 깊은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손질은 까다롭고 수확량도 적지만, 한 번 맛보면 '김 중의 김'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게 된다.

해외에서 난리난 K-푸드



겨울철 길거리 K-간식

붕어빵

겨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간식이 있다. 바로 붕어빵이다. 붕어 모양 틀에 구워낸 붕어빵은 바삭한 겉면과 앙금 가득한 속으로 '겉바속촉'의 정석이다.

최근 붕어빵의 세계는 훨씬 넓어졌다. 앙버터, 피자, 팥호두, 슈크림, 모차렐라 치즈, 고구마는 기본, 초코와 말차까지 등장하며 취향 따라 고르는 재미가 생겼다. 이제 붕어빵은 '겨울 간식'을 넘어 하나의 선택지다.

이 작은 길거리 간식은 한국형 스트리트 푸드를 넘어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여행 브이로그와 K-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흐름에 맞춰 식품업계는 말차·고구마·팥·슈크림 등 다양한 맛의 붕어빵을 선보이며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 중이다. 바삭하고 달콤한 이 작은 붕어빵은 지금도 국경을 넘는 중이다.

정리. 편집실

나를 충전한 *Power*의 정체

**누군가에게는 바벨, 누군가에게는 배터리, 또 누군가에게는 아이언맨.
'Power'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나 다양하다.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Power'의 정체는 무엇일까.**

응답자 수 89명

'Power'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36%
힘 있게 들어 올린
바벨



30.3%
가득 찬
배터리



14.6%
파워 넘치는 아이언맨
(슈퍼 히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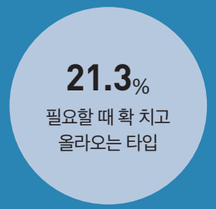
12.4%
왕좌에 앉은 지도자
(왕/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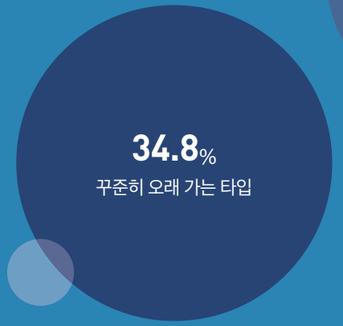
6.7%
기타
(지드래곤 'POWER')

내가 추구하는 Power 스타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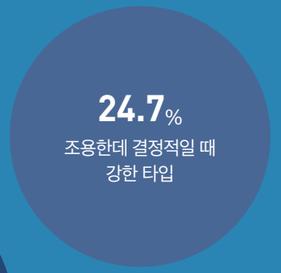




21.3%
필요할 때 확 치고
올라오는 타입



34.8%
꾸준히 오래 가는 타입



24.7%
조용한데 결정적일 때
강한 타입



19.2%
나도 살고, 팀도
같이 사는 타입



내가 파워를 충전하는 방법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에너지 충전하기
낙동강동부사업단 제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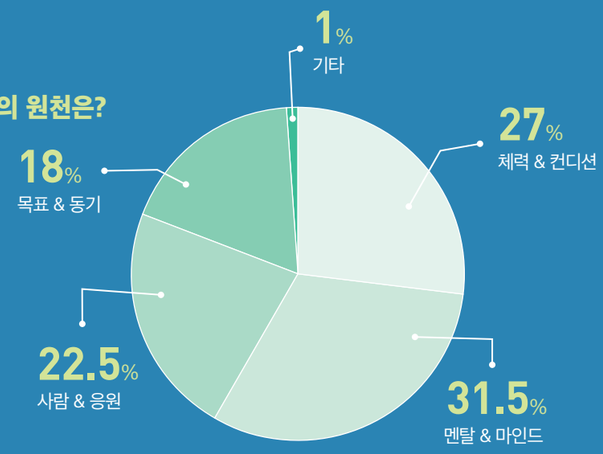
무선 충전기 같은 침대에서의 휴식
공간경관처 심재학

요즘 제 파워 충전 비결은 아침 러닝입니다.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뛰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
겨서 하루를 더 가볍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더라
고요.
동화권지사 이송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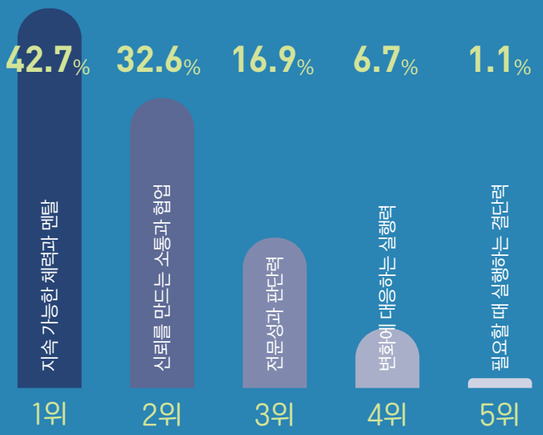
하루 1시간 걷기·뛰기·계단오르기로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요.
남강댐지사 이강현



내 '힘'의 원천은?



나만의 파워(경쟁력)의 필수 요소는?



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것을 한다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요. 다른 팀과의 접
점이 없더라도 커피 한 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업무 연관성이 보일 때가 있어, 그때 협업을
제안해요.
동두천수도지사 김형욱

'내 꿈은 무엇이지' 막연했던 마음을 붙잡고, 하
고 싶은 일을 하나씩 적어보고, 작은 계획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꿈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
어요.
친수사업처 박용상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꾸준함
을 지키고 있어요. 짧게라도 매일 공부하고, 주
간 목표를 세워 진도를 관리하며, 차근차근 합
격까지 가는 중이에요.
금산권지사 김병학

작은 일에 감정이 불타지 않도록 수영으로 머리
를 식히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수도개발처 엄지혜

최신 강의는 즐겨보는 편
(트렌드+공부, 둘 다 챙기기)
인재개발원 김윤정

주변 분위기를 세심하게 살피며
눈치 챙기기
광주수도지사 김수정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경쟁보다 과정, 승패보다 스토리

<흑백요리사>가 보여주는 K-콘텐츠의 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가 시즌1에 이어 화제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적지 않게 시도되었지만, 어째서 <흑백요리사>는 이토록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을까. 그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일까.





<흑백요리사>, 요리 서바이벌의 강력한 영향력

<마스터 셰프 코리아>, <한식대첩> 같은 블록버스터급의 요리 서바이벌부터, <냉장고를 부탁해>, <신상출시 편스토랑> 같은 정규화된 요리 서바이벌까지, 음식과 서바이벌의 조합은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였다. 그 문법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더 이상 새로움을 주지 못할 거라 여겨지던 시점에 불쑥 <흑백요리사>라는 변칙 요리 서바이벌이 등장했다. 미슐랭 스타 셰프, 요리 명장, 유명 방송인을 백수저로, 재야의 고수, 동네 맛집 사장 등 실력은 있지만 명성은 없는 도전자들을 흑수저로 세워 계급을 나누고 이들이 대결하는 형식을 더한 요리 서바이벌이다.

흑백 대결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부가한 것뿐이지만, 의외로 이 방식은 색다른 궁금증을 유발했다. 과연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은 당연히 백수저의 승리로 이어질까. 이들이 만일 팀으로 엮이게 된다면 그 조합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흑수저의 트렌디한 시도와 백수저의 경륜의 대결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시즌1은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서 탄생한 스타 셰프들이 각종 방송에 출연해 인기를 이어갔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도 활황을 맞게 됐다. 콘텐츠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 외식업 같은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 1년 만에 돌아온 시즌2 역시 마찬가지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벌써부터 SNS가 뜨겁고 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예약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자극적인 경쟁과 승패? 과정과 스토리가 이겼다

사실 흑백 계급을 나눈다는 건 그 자체로 출연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다. 등장부터 흑수저와 달리 마치 신이라도 등장하듯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윗층에서 등장하는 백수저의 모습이 그렇다. 또 첫 미션에서 흑수저들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선보여 합격을 받으려 애쓸 때, 백수저들이 그걸 위에서 관망하는 광경도 그렇다. 하지만 본격 경쟁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흑백대결이 시작되면 이제 긴장하는 건 오히려 백수저다. 명성 같은 계급장을 떼놓고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해야 하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백수저가 오히려 흑수저에게 패배하는 광경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흑백의 계급구도는 '공정한 룰'에 의해 깨져버린다. 시청자들은 흑수저가 백수저를 이기는 광경에 열광하고, 패배한 백수저가 이를 인정하고 흑수저의 손을 들어주는 예우에 감동한다. 경쟁과 승패라는 자극 대신 과정과 스토리라는 감동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흑백요리사>는 보여준다.

시즌1에서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만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비빔인간'이라는 서사로 음식에 풀어낸 에드워드 리가 사랑받는 일이 생겨난 건 그래서다. 시즌2에서 결승까지 가지 못했지만 참가한 요리사들의 '사부'로서 존경받은 후덕죽 셰프나 시즌1에서 탈락했지만 재도전해 끝내 우승을 거머쥔 최강록 셰프가 스타덤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서바이벌이긴 하지만, 승자만큼 패자의 서사도 돋보이게 저마다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은 중도에 탈락했어도 인기를 끈 손종원 셰프, 술빚는 윤주모 같은 스타들이 탄생한 주요 원인이다. 이른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나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같은 출연자들의 도전 과정에 담긴 스토리에 대중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한 끗 차이를 가르는 건 수용자의 마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보다 자극적인 건 당연하다. 결국 누군가와 경쟁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도가 아닌가. 하지만 이 살벌한 서바이벌에서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그 힘의 한 끗 차이를 가르는 일이다. 서구의 서바이벌이 출연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과 도파민 유발의 자극을 따라간다면, <흑백요리사>는 한국적 경쟁 현실을 프로그램에 가져왔지만 그 경쟁을 뛰어넘는 훈훈한 서사를 선택했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의 한국적 현실을 이 프로그램은 흑백 계급을 나눠 재연했지만 그것이 실제 승부에는 별 의미도 없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선후배 관계에도 불구하고 백수저 손종원을 흑수저 요리괴물이 이기는 역전의 이야기를 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덕죽 셰프 같은 대선배가 끝까지 좋은 승부를 보여주는 보편의 이야기도 담겨진다. 경륜, 나이, 명성 등으로 나뉘는 흑백 계급은 그저 색깔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흑백요리사>는 백수저든 흑수저든 또 우승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 스타 셰프가 탄생한다. 도전적인 시도를 통한 우승은 물론이고 품격 있는 패배에도 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결과 만능주의나 수저계급론에 지친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결국 시청자들이 요리사들에 열광하고 그들의 음식점까지 발길을 옮기게 만드는 힘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저 경쟁하고 승리하기보다 그 과정과 스토리로 설득하는 것. 어쩌면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힘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늘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파워의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버티게 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습관, 함께 움직이는 합. 이 셋이 한 번에 맞물리는 순간, 파워는 '판'을 뒤집는 추진력이 된다. 장은실 선수가 보여준 진짜 파워가 딱 그렇다.

파워를 다시 정의한 '육각형 선수'

장은실 선수





출처.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

레슬링으로 증명한 진짜 파워, 전략과 팀워크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시리즈 <피지컬: 아시아>. 아시아 8개국이 총력을 다한 국가대항전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그 치열한 무대 한가운데에는 레슬링 전 국가대표 장은실 선수가 있었다. 그는 레슬링으로 다져온 민첩함과 전략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팀 코리아의 우승을 이끌었다. 체급이 아니라 전략으로, 힘만이 아니라 팀으로 승부를 완성한 그는 말 그대로 '육각형 선수'였다. 우승 이후 반응도 뜨거웠다.

"축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 거냐', '전략이나 지략은 방송에 잘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결승전은 부담이 컸다. 벽을 밀고, 거대한 추가 달린 장비를 끌어야 하는 미션이 연달아 나왔다. 누가 봐도 힘이 전부처럼 보였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사실은 멘탈 싸움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집중력을 끌어올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이 큰 힘이 됐어요."

장은실 선수는 그 순간을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합의 대결'로 바꿔놓았다. 눈빛 한 번, 손짓 한 번, 짧은 콜 하나에 팀이 동시에 반응했고, 그 찰나의 맞물림이 점수판을 뒤집었다.

"몽골 선수들은 피지컬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저 산을 한번 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힘든 것도 잊고 소리치게 되고, 도파민이 확 올라오면서 시너지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힘들다기보다 내가 팀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번 출연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피지컬: 100>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던 그는 '레슬링이 가진 진짜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레슬링은 올림픽 때만 관심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사람들은 '힘으로 밀고 뒤집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첩하고 전략적인 스포츠예요. '레슬링 선수들도 이렇게 머리 쓰고 움직이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장은실 선수의 레슬링은 '힘으로만 버티는 경기'가 아니다.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빼앗고, 상대의 리듬을 흔들어놓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그 강점은 경기장 밖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결승전에서조차 그는 '힘'의 정의를 다시 썼다. 파워는 신체 근육만이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는 판단력과 결집력이라는 것을.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에 출연을 결심한 계기와 우승 후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엔 '한국 대표'라는 부담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슬링 선수로 20년 넘게 운동해오다 보니, 이런 무대가 제게는 '기회의 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우승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저는 여전히 선수고, 평소처럼 훈련하고 있거든요. 다만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덕분에 '도전을 더 자신 있게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억에 남는 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몽골팀 선수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디야수렌 아마르사이항 선수는 실제로 만나면 애교도 많고 정말 귀여운 선수예요. 얼마 전에는 몽골에서 유도도 함께했는데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선수구나' 싶을 정도로 힘이 또 장사예요.(웃음)
그리고 엥흐어르걸 바타르후 선수는 반대로 정말 신사적이고 젠틀한 느낌이 강했어요. 예의 바르고 차분한데, 경기에서는 또 굉장히 단단하고 집중력이 높더라고요. 두 선수 모두 반전 매력이 확실해서 더 기억에 남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 자체의 매력'까지 배우게 된 선수들이었습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셨고, 최근에는 크로스핏, 씨름도 하고 있으시다고요. 다양한 종목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운동이 늘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국어·수학·영어 같은 과목을 배우듯, 종목이 달라지면 몸이 배우는 언어도 달라지거든요. 레슬링이 제 몸의 기본을 만들었다면, 다른 종목은 제가 몰랐던 한계와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줘요.
특히 씨름은 중심과 균형, 힘을 쓰는 방식이 달라서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종목을 알아갈수록 운동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이 곧 성장이라는 걸 느낍니다. 도전은 제게 도파민도 주고, 자신감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어떤 형태로든 도전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이나 경쟁을 하다 보면 패배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나를 일으키는 힘은 무엇인가요?

저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를 다시 떠올려요. 지고 나면 실망도 하지만, 그 시간 역시 성장이라고 믿거든요. 늘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오르내리면서 올라가는 구조가 현실에 가깝잖아요. 결국 승패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은실 선수만의 파워를 충전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휴식이 곧 충전이에요. 평소에 'On'으로 달렸다면 'Off' 시간도 꼭 가져야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쉴 때는 사우나를 하거나, 12시간 넘게 잠을 자거나,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강아지랑 산책하거나 여행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확실한 회복이에요.

다양한 운동 종목뿐만 아니라 방송, 유튜브 '운동하는제이'까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도전의 원동력이라면?

처음 방송에 나갔을 때, 저는 '경기장 안'이라는 틀에서만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운동이 주는 가치, 에너지, 그 좋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걸 왜 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결국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는 걸 믿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장은실 선수님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오래 가는 선수로 남고 싶어요. 건강해야 즐겁게 오래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즐기면서 하다 보면 그게 목표가 되고, 목표가 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가대표나 유명 선수를 롤모델로 삼았다면, 지금은 '나도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언니보고 운동 시작했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물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운동선수에게 수분 보충이 필수인 것처럼요. 저도 해외에 다녀오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물과 환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크게 느낍니다. 늘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이 '물 걱정 없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응원합니다.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영상.** 이덕재



경남 서부를 책임지는 물관리 드림팀 경남서부권지사

넓은 지역을 관할하려면 대단한 내공이 필요하다.
정확한 방향키를 쥐고 현장에서 쏟아지는 변수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남서부권지사.
파워 넘치는 경남서부권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수타벅스가 출발했다.



100만 명의 일상을 지키는 힘

경남 서부지역은 바다와 섬, 강과 산, 도시생활권과 산업 기반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다. 한 권역 안에 다양한 환경이 공존하는 만큼 물공급 역시 '하나의 정답'으로 풀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운영과 촘촘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경남서부권지사는 관할 면적으로 전국 최대 사업장이다. 관로 길이만 344㎞, 근무 직원만 약 120명. 한마디로 스케일이 크다. 사천·고성·통영·하동·진주·남해·거제 7개 지자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급수인구만 약 100만 명이다. 이들은 "오늘도 100만 명의 물을 책임진다"라는 사명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일상을 단단히 받치고 있다.

경남서부권지사는 사천·통영·고성 3개 수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운영을 펼친다. 사천수도센터는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업과 생활을 동시에 떠받치는 안정적인 물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통영수도센터는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소외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고성수도센터는 농어촌지역의 오래된 시설을 현대화해 안정적 급수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

경남서부권지사의 목표는 하나다. 이상기후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주요 시설에 '물 끊김은 절대 없게' 물공급 안정성을 단단히 확보하는 것. 여기에 AI 시대 흐름에 맞춰 시설 운영과 물관리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현장 안전은 더 튼튼하게, 물복지는 더 믿음직하게 24시간 물공급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수타벅스가 간다



그 중심에 있는 통합관리팀은 2025년부터 도입된 스마트정수장 AI 플랫폼을 통해 철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I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원수량에 맞춰 응집제 등 최적의 약품 주입률을 산정하고, 수용가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펌프 운영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이러한 기술적 뒷받침 덕분에 직원들은 사고 징후를 더욱 빠르게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정훈 사원은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사고 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변화를 AI가 포착하고 관리자가 즉각 대응하는 협업 체계가 구축되면서, 더욱 빈틈없는 사고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물은 멀리 보내도, 소통은 더 가깝게

경남서부권지사는 기술 고도화만큼이나 소통에도 진심이다. 지리적으로 3개 수도센터가 분산돼 있는 만큼 소통과 협업이 업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은 멀리 보내도, 소통은 멀어지지 말자'는 이들의 다짐 덕분에 이곳의 물관리는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김종율 지사장은 "직원들은 3개 수도센터에 흩어져 근무하지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끈끈한 'One Team'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공급에 완벽히 책임지는 전문성과 헌신이 우리 직원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진정한 경쟁력입니다"라고 자랑했다.

오늘도 경남서부권지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일당백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100만 명의 일상에 '물 걱정 없는 하루'를 선물하고 있다.

수타벅스로 웃음 충전한 하루

늘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정성엽 부장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직원들 모르게 '수타벅스'를 신청한 것. "직원들과 파이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늘만큼은 다들 잠깐 숨 돌리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수타벅스를 경남서부권지사로 불렀다.

수타벅스 앞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시작부터 들떠 있었다.



메뉴판을 바라보는 눈빛도, 주문을 기다리는 표정도 괜히 반짝였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음료 드실래요?", "닭강정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라는 대화가 오가며 현장에 여유로운 웃음이 번졌다.

김미지 차장은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차 타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커피가 우리한테 왔네요. 너무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최성훈 대리는 텀블러와 닭강정을 받아 들고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수타벅스를 직접 보니까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수타벅스 영접 성공입니다." 김정현 과장은 "수타벅스 덕분에 동료들과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며 웃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이런 시간이 진짜 힘이 됩니다"라며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잠깐의 커피 타임이었지만, 현장에 쌓였던 피로가 한결 가벼워졌다. "오늘은 커피가 복지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수타벅스는 직원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쉼표가 되어주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경남서부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Mini-Interview



김종율 지사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과보다 직원들의 안전입니다. 2026년에도 모두가 건강하게,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들 '안전 최우선' 원칙을 늘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지켜져야 현장도 성과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정현 과장

통영수도센터는 배를 타고 욕지도, 사량도까지 들어가 현장 점검부터 시설 운영 지원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몸은 힘들고 고되죠. 그런데 주민분들이 정이 정말 많아요. 현장에서 손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 한마디 해주실 때, 그 순간 피로가 싹 풀리면서 '아, 이 맛에 한다' 싶더라고요.



정성엽 부장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직원들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아,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 분위기까지 배달되는 이벤트겠다' 싶어서 수타벅스를 신청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유대감도 다지고, "우리 다시 파이팅하자!" 하는 에너지를 함께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글.'K-water연구원 참고자료. 『Water & Tech INSIGHT』(10월호)

한국형 물관리 Digital Twin의 심장

K-SERIES

물은 비나 눈으로 내려 땅과 바다로 이동하고, 다시 증발해 비나 눈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거친다. 그래서 물관리는 결국 이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에 최적화된 물순환 분석 SW 패키지 'K-series'를 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지며 K-물관리는 예측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올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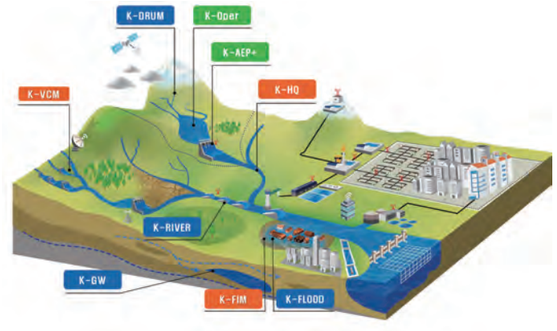
물관리의 시작, 물순환의 기술

홍수와 가뭄, 수질과 생태, 지표수와 지하수…. 물 문제는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물순환' 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비나 눈으로 시작한 물은 땅 위를 흐르기도 하고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며, 증발해 하늘로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물의 양·질·시간·공간은 끊임없이 바뀐다. 그래서 물관리는 결국 '물순환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느냐'에서 시작된다.

물순환을 제대로 해석하면 쓸 수 있는 물(가용 수자원)을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오염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경로를 추적해 수질 대응도 빨라진다. 홍수 위험지역과 가뭄 취약지역을 미리 짚어 '선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산지가 많고 하천 유역이 짧고 가파른 우리나라에서는 유역 전체를 한 장의 지도처럼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상·하류간 상호 작용 등의 유역 전체의 물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된다.

물순환 과정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적 방법은 크게 4가지다. 통계·확률적 예측, 수학적 모델링, AI 예측, 융복합적 접근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수학적 모델링 기반의 수치모형이다. 물리적 정보와 원리에 기초해 예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통계적 예측은 정형화된 패턴 예측은 가능하나 돌발상황에 취약하며, AI는 속도와 유연성은 뛰어나지만 '왜 그러한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융복합적 접근방법은 신뢰도는 높으나 구현 난이도 역시 만만치 않다.

K-series 구성



K-series 개발 과정

2015
- K-water 소프트웨어센터 설립
- K-series 네이밍 확립

2017
- 소프트웨어센터 연구원 이전
- K-series 개발기술 런칭

2020
- K-River, K-Flood 개발
- K-series 대국민 공개

2025
- K-GW, K-Urban 개발 중
- Digital Twin 시뮬레이터 개발

한국형 물순환 엔진 'K-series' 개발

과거 물순환 해석·예측용 물관리 SW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해외 지형과 토지이용, 수문 조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SW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춰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라이선스 비용 부담, 물 안보 기술의 종속성, 수자원·기상·위성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와의 연계까지 생각하면 답은 분명했다. 국내 고유 SW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국산화에 착수했고, 물순환 과정의 핵심 요소별로 10개 단위 SW를 개발해 'K-series'로 완성했다. 물순환 해석 분야 6개, 물관리 시설 운영 지원 분야 4개로 구성된 '한국형 패키지'다. 물순환 해석 분야는 K-DRUM(수문 모형), K-River(하천수리 모형), K-Flood(홍수범람 모형), K-RSIM/K-Oper(저수지 운영 모형), K-GW(지하수 모형), K-Urban(도시홍수 모형)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 지원 분야로는 K-VCM(가상하도 생성 툴), K-FIM(GIS 홍수피해영역 맵핑 툴), K-HQ(수위-유량 관계 곡선식 산정 툴), K-AEP+(최적 발전량 산정 모형) 등이 포함된다.

K-series의 의미는 분명하다. 단순히 '외산을 대체했다'에 머물지 않는다.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해석·예측 역량을 확보했고, 전문 인력과 기술 자립의 기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물순환 해석 분야가 추격자에서 경쟁자로 넘어선 전환점이 됐다.

K-series SW 개요

물순환 해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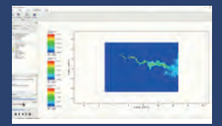
① K-DRUM(수문 모형)

- 강우 유출해석을 위한 물리 기반의 격자·분포형 수문해석
- DB 연계기능, 입출력 가시화 기능, 증발산·융적설 모듈



② K-River(하천수리 모형)

- 정상류·부정류 및 구조물 해석이 가능한 1차원 하천수리해석
- 하천 분기, 합류 해석, 수위·유량·유속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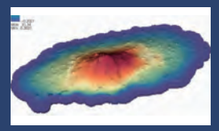
③ K-Flood(홍수범람 모형)

- 고해상도 지형 및 구조물을 반영한 2차원 홍수범람해석
- 적응형·가변형 및 Cutcell 격자 체계, K-River 연계



④ K-RSIM/K-Oper(저수지 운영 모형)

- 댐·보 연계 운영을 고려한 저수지 모의 운영
- 댐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량 산정기능, 전용 GUI 제공



⑤ K-GW(지하수 모형)

- 3차원 지하수 흐름 및 용질 운송·밀도류 해석
- 포화대·불포화대 흐름 모의, K-DRUM/K-River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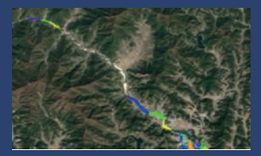
⑥ K-Urban(도시홍수 모형)

- 도시 유역 특성을 고려한 1D·2D 동적 통합 도시침수 해석
- 강우 유출해석, 하수관망 흐름해석, 내외수 연계, 1D·2D 양방향 흐름 분석, 도시 치수시설물 반영 분석

운영 지원 분야



⑦ K-VCM(가상하도 생성 툴)



⑧ K-FIM (GIS 홍수피해영역 맵핑 툴)



⑨ K-HQ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 산정 툴)



⑩ K-AEP+ (최적 발전량 산정 모형)

디지털 트윈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K-series가 완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처는 이제부터다. 물관리 Digital Twin(DT) 플랫폼에서 핵심은 미래를 그려내는 시뮬레이션 SW의 예측력과 정확도다. 댐과 하천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하고, 시뮬레이션과 시각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돕는 DT 플랫폼의 목적을 생각하면, 물순환 해석·예측 SW의 완성도가 곧 플랫폼의 경쟁력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부터 DT의 핵심 과제인 홍수 예측 고도화를 위해 K-series 수치 모형과 AI 예측 기술을 접목하는 실증과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리 기반 모형의 신뢰성과 AI의 속도·학습력을 결합해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최근에는 물리 법칙을 AI 학습에 반영해 예측력을 끌어올리는 PINN(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 같은 융합 시도도 활발해 해석·예측 기술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전망이다.

현장 확산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K-series를 DT 플랫폼의 핵심 요소 기술로 탑재·운영하며 활용성을 넓히고, 기술 공개를 통해 '재활용 → 재배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예측력이 높은 시뮬레이션 SW를 품은 DT 플랫폼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맞서는 디지털 물관리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의 판을 키우는 일이다. 10년간의 노력으로 이룬 K-series 국산화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 기술이전과 사업화까지 이어져야 국내 디지털 물산업의 성장 동력이 된다. 동시에 물관리 전문기관뿐 아니라 AI·빅데이터 기업, 산학연이 함께하는 공동개발·공동활용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기술 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물순환의 미래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히'로 향한다.



* **PINN:** 딥러닝과 물리학 법칙(수학적 방정식)을 결합한 AI 기술로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과 결과의 도출 과정에 대한 물리학 법칙을 통한 해석이 가능



01

‘물관리 AI 전환 글로벌 선도’ 실행 원년 선포

지난 1월 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전 세계의 물관리 AI 전환을 본격 선도하는 실행 원년을 선언했다.

윤석대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AI 기반 물관리 기술력의 대외적 인정과 공사 최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는 성과를 쌓는 단계를 넘어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주요 추진 방향은 기후안전망 강화, 하이테크 물 서비스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도시 조성, 글로벌 기후테크 선도로 설정했다. 그간 축적해 온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전사 역량을 결집해 전략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AI와 위성 기술을 결합해 홍수·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해 물 부족 위험을 대비한다. 또한 첨단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 공급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한국형 물관리 기술의 세계 표준화도 본격화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6년은 AI First 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원년”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에서 출발해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02

4년 연속 ESG 종합평가 최고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상장사 포함 국내 최대 규모의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등급(AA)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1,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E, S, G 전 영역의 이행 수준을 검토해 총 7개(AA-A-BB-B-C-D-E)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종 AA등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전기·발전·수도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종사하는 30개 기업이 소속된 유틸리티 부문에서 3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유틸리티 부문 평균점의 150% 이상을 득점하는 등 부문을 선도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물 분야 세계 최초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등대 선정 및 OECD 글로벌 품질 인증을 획득한 AI 정수장 등 상수도 전 과정의 AI 중심 전환 노력과 현장 안전 수시 점검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기동반 신설 등 ‘안전·에너지·AI’ 중심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03 충남대·일본 신슈대와 물산업 글로벌 연구 협력



지난 1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충남대, 일본 신슈대와 물 분야 기술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첨단수처리와 물에너지 융합분야 등에 걸쳐 국제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를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간 충남대와 함께 지속해 온 지역 기반 물산업 기술 협력을 글로벌 연구 협력으로 확장한다. 또한, 60년 가까이 축적한 물 인프라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남대의 연구 인프라와 일본 신슈대의 소재 기술을 연계하는 '실용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 분야는 수자원 관리 및 정수·수처리, 수력발전 및 물·에너지·환경 융합,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재해 예방·감소, 차세대 인재 양성과 사회적 구현이다.

04 남수단 대표단 방문 및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남수단(The Republic of South Sudan)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남수단 고등교육·과학기술부와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만남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남수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사)이태석재단의 협조로 추진됐으며, 양측은 협약을 통해 수자원 관리 기술과 인프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남수단의 물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수자원 관리 기관 및 인적 역량 강화, 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전략 수립 지원, 물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남수단의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물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05 미국 버지니아 현지 실증평가 위한 협약 체결



지난 1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HRSD SWIFT 연구센터에서 '국내 활성탄 재생기술의 현지 성능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하·폐수처리 공기업인 HRSD(Hampton Roads Sanitation District), 국내 물기업 ㈜윈텍글로비스가 참여한 3자 간 업무협약이다. 국내 입상활성탄 재생기술의 미국 현지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활성탄 재생 기술의 해외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미국 현지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파일럿 플랜트 설치,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대상 성능평가, SWIFT 사업 적용성 검토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이다.

06 자회사와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지난 1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케이워터기술(주)과 함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력은 모-자회사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기업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에 대금을 별도 예치해 운영함으로써,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도 위험을 예방하여 협력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공사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대상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총 566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 최행좌 **사진.** 박갑순

자연이 알려준 힘의 방식 우포늪

우포늪은 천천히 축적된 자연의 힘을 만나는 곳이다.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고, 속도를 늦춘 사람에게만 슬쩍 얼굴을 내민다. 조용하지만 만만치 않은 힘을 품은 늪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살아 있는 늪

경상남도 창녕군에 자리한 우포늪은 첫인상부터 만만치 않다. 한눈에 담기지 않는 풍경은 이곳이 '잠깐 보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려준다. 마치 두꺼운 연대기를 펼쳐 놓은 책처럼, 우포늪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500만㎡에 이르는 늪지에는 산소를 만드는 박테리아부터 땅속에서 생명의 그물을 엮는 균사류, 우렁이와 각종 물고기, 철새와 고라니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창녕군 기록에 따르면 800종이 넘는 식물과 200여 종의 조류, 여러 어류와 포유류가 이곳에 터를 잡고 있다. 도심에서는 '귀한 손님' 취급을 받을 풍경이, 이곳에서는 그냥 오늘의 일상이다.

우포늪은 1997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뒤 1998년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됐고, 2011년에는 천연보호구역으로도 인정받았다. 결정적으로 2018년,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며 그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훈장처럼 달린 장식이 아니다. 자연이 스스로를 지켜온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힘이 남긴 기록이다.

봄이면 연둣빛 새싹과 수생식물이 수면을 밀어 올리며 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여름에는 숲과 바람이 햇살을 걸러내 늪에 그늘을 만든다. 가을이 오면 철새와 갈대가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겨울에도 생명은 눈발 아래에서 묵묵히 숨을 쉰다. 계절은 바뀌어도 우포늪의 태도는 한결같다. 급할 것 없이, 하지만 결코 느슨하지 않게.

하나였던 늪, 다시 이어진 풍경

우포늪은 제방을 따라 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 네 개의 자연 늪으로 나뉜다. 여기에 2017년 복원된 산밖벌까지 더해 '3포 2벌'이라 불린다. 이름의 유래도 투박하다. 소를 닮아 우포, 홍수 때 나무가 떠내려왔다 해 목포, 모래가 많아 사지포, 그리고 규모가 작아 쪽지벌. 자연을 바라보던 옛사람들의 직관이 그대로 남아 있다.

산밖벌과 쪽지벌을 잇는 우포출렁다리는 꼭 들러야 할 포인트다. 늪 위에 살짝 놓인 쉼표처럼, "잠깐만 보고 가세요"라고 말거는 다리다. 흔들림마저 자연의 박자로 느껴지는 이곳에서는, 늪이 더 이상 감상 대상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웃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새들이다. 겨울이면 철새와 청둥오리, 고니, 큰기러기가 늪의 주인처럼 하늘과 물 사이를 오간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감각이다. 관찰대 안에서 숨을 낮추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새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그때쯤이면 인간도 구경꾼이 아니라, 이 늪의 조용한 방문자가 된다.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는 법

우포늪에는 네 개의 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총연장 약 12km. 하루에 전부 돌기에는 제법 길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보다 리듬이다. 늪마다 품은 공기와 분위기가 달라,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생태관 인근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우포늪을 느긋하게 느껴보자.



여기서는 빨리 가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법이 없다.

탐방의 시작이나 마무리로 우포늪생태관에 들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입체 모형과 영상은 방금 보고 지나온 풍경에 "사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고 귀띔해 준다. 시청각교육실에서 상영되는 〈우포 사계〉와 3D 영상은 늪이 품은 시간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고, 다국어 안내와 해설 덕분에 이곳은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생태 교실이 된다.

우포늪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버텨온 시간과 살아남은 생명의 무게다. 이곳을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진짜 힘이란, 요란하지 않아도 끝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포늪생태관

- A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길 220
- H 09:00~18:00(17시까지 입장)
- F 무료
- T 055-530-1556

글. 박상현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눈의 실종, 설악의 실종



박상현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설악(雪嶽)은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해발고도가 높으며, 암석이 설경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날 설악의 빙벽(氷壁)에는 얼음이 없었다. 앙상하게 얼어붙은 두 줄기 폭포수가 이곳이 설악산의 '두줄폭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줬다. 예년 이맘때면 암벽이 통째로 얼어붙어서 설악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눈의 암석'을 볼 수 있던 곳이다. 그런데 얼음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취재차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의 빙벽 점검에 동행했다. '두줄폭포' 코스는 총 8개의 설악산 빙벽 코스 중 소공원 입구에서 1시간 정도 산을 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여름에는 두 줄기로 내려오는 폭포를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두 물줄기 사이가 얼어 하나의 장엄한 얼음벽을 감상할 수 있다.

빙벽이란 쉽게 말해 폭포가 언 것이다. 그 수직의 암벽이 전부 얼어붙었을 때 인간은 폭포에 온전히 몸을 맞대고 그 시작과 끝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감상할 수 있다. 보통 설악산은 1월 초 폭포 암벽에 30㎝가량 얼음이 붙어 얼고, 얼음이 한파를 만나 단단해지며 1월 14~18일 사이 '빙벽 코스'가 정식 개장한다. 그런데 올겨울은 이달 14일까지 얼음 두께가 채 15㎝가 되지 않았다. 얼음 두께를 재는 17㎝ 길이의 스크루가 다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가 많았다.

빙벽 형성이 늦어진 것은 올겨울 '눈의 실종'과 '롤러코스터 기온'이 원인으로 꼽힌다. 설악산에 눈이 쌓이려면 일단 찬 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을 통과하며 큰 눈구름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후 동해의 수증기를 머금은 이 축축한 습설(濕雪)이 강원 영동 일대에 이불을 겹쳐놓듯 층층이 쌓이고, 최소 열흘 정도는 영하 10도 내외의 한파가 찾아와 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올겨울 강원 영동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찬 바람을 주로 서해상으로 불어 넣었다. 서해상을 통과한 눈구름대가 강원 영동까지 닿으려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대부분 산을 넘지 못하고 영서 지방에서 눈을 소진한다. 이에 속초는 1월 중순까지 적설량이 0이었고, 인제는 3㎝ 안팎의 눈이 세 차례 내렸으나 하루 새 기온이 5~10도가량 널뛰며 미처 얼기도 전에 모두 녹아버렸다. 얼음의 재료가 되는 눈이 적게 내리고,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넘나들다 보니 빙벽이 형성될래야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눈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20년대(2020~2024년)까지 국내 적설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적설량이 1980년대 38.3㎝에서 2010년대 32.2㎝, 2020년대 21.9㎝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40년 만에 우리나라 눈의 43%가 사라진 것이다.

온난화로 해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910년대 12도에서 2020년대 14.8도까지 2.8도 올랐다. 해발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1도씩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한반도 설경의 '생존 구간'은 약 300m 정도 올라간 셈이다. 기상학적 겨울(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부터 끝날)도 과거(1912~1940년)보다 최근(1995~2024년) 22일 줄었다. 상고대 등 겨울 설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빙벽 점검을 마치고 내려와 다시 설악산을 바라봤다. 훗날 설악의 산마루엔 더 이상 눈이 쌓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설악을 바라보는 이들을 상상하니 마음 한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글. 최행좌 그림. 추관소



바다의 신이 보여준 힘
뇨르드

바이킹이 바다를 무대로 삼던 시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 '뇨르드'였다. 거친 바다 앞에서 진짜 힘은 '더 멀리'가 아니라 '무사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출항할 때마다 뇨르드의 이름을 불렀다. 바다의 신 뇨르드가 보여준 '귀환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태어난 신, 뇨르드

항해술이 뛰어났던 바이킹은 발트해와 북해는 물론, 지중해와 흑해까지 바닷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배를 띄워 세상을 누볐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로 나설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신이 있다. 바다와 바람의 신, 뇨르드(Njord)였다.

뇨르드는 북유럽 신화에서 바다와 바람, 항해와 풍요를 다스리는 신이었다. 그는 번개처럼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물결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인간의 삶을 붙든다. 그는 본래 자연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니르에 속한 존재로 전해진다. 바니르의 신들은 땅의 결실과 바다의 먹거리, 삶의 '지속'을 관장했다. 그래서 뇨르드의 탄생은 곧 생존의 약속이었다. 북쪽 바다는 풍요를 주지만 그만큼 차갑고 거셌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바다와 타협하고, 때를 기다렸다. 뇨르드는 그런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준 존재였다.

북유럽 신화의 기록인 『에다』에 따르면, 세상에는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바니르 신족과 생명과 사랑을 관장하는 애시르 신족이 존재했다. 두 신족은 한때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격렬한 전쟁을 치렀으나,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이들은 긴 싸움 끝에 서로 인질을 교환하며 평화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때 바니르 신족이었던 뇨르드가 애시르 신족의 땅인 아스가르드로 향하게 됐다. 그가 지닌 폭풍을 다스리는 거대한 힘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고귀한 담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뇨르드는 이곳에서 바이킹이 굶지 않도록 세상을 살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바다로 나가면 바람으로 돛을 밀어주고, 잔잔한 파도로 길을 열어 무역과 교역으로 살아가도록 도왔다. 그가 주는 것은 '정복의 기적'이 아니라 '생존의 가능성'이었다.

뇨르드가 가진 능력은 바다를 뒤엎는 폭발력이 아니다. 그의 힘은 순풍과 통로에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파도 사이를 지나갈 작은 틈, 돛을 밀어줄 한 번의 바람, 배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의 균형이다. 뇨르드는 바로 그 '작지만 결정적인 것'을 다뤘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출항 전, 전리품을 꿈꾸기보다 먼저 뇨르드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 바라는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무사귀환이었다.

'틈'을 만드는 뇨르드의 힘

뇨르드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그가 바다를 조율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폭풍이 몰려오면 그는 폭풍을 없애기보다 방향을 바꾼다. 파도가 높아지면 파도를 낮추기보다 배가 지나갈 길을 만든다. 즉 뇨르드는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맞춘다. 그가 보여주는 힘은 '더 강해지는 힘'이 아니라 '살아남는 힘'이었다.

이런 성격은 그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뇨르드는 산과 눈의 여신 스카디(Skathi)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9일은 남편의 집, 9일은 아내의 집'을 오가며 지내기로 한다. 문제는 취향이 너무 극과 극이었다는 것. 스카디는 산의 정적과 차가운 공기를 사랑했고, 뇨르드는 갈매기 울음과 짠 바다의 숨결을 사랑했다. 서로를 존중해 보려 했지만, 결국 둘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뇨르드가 '억지로 버티는 힘'보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상징한다. 돌아온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결국 뇨르드의 능력이 말하는 '힘'은 분명하다. 힘은 세상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내일도 항해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거친 바다 앞에서 멈출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결국 돌아올 줄 아는 힘. 뇨르드는 그 힘의 이름이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대전의 힘,
대전의 에너지 찾기!**

한화이글스 정우주 선수와
대전 에너지 찾기

#대전의힘 #대전에너지
#정우주 선수 #한화이글스



블로그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

#K-물길여행 #순천여행
#상사호 #주암댐



X(트위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직장인공감 #직장에피소드





페이스북

**국내 겨울 온천
여행지 추천**

#겨울여행 #온천여행
#산방산 탄산온천 #우리유황온천



인스타그램

**날씨가 풀리지 않네!
오늘 꼭 따뜻하게 입어~**

#방울이날씨요정 #감기조심 #겨울날씨



2월호 이벤트 안내

Vol.695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2월호 사보 또는 웹진, 블로그를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접수 마감일	2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28일

참여하기

EVENT 2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일까?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는 물이 얼 때 물 분자들이 육각형 결정 구조를 만들면서 빈 공간이 생겨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는데, 이 말은 사실일까?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STEP 2	1:1채팅방 클릭
STEP 3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접수 마감일	2월 25일
선물 발송일	2월 28일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일(0100)

평소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사 덕분에 '가상발전소(VPP)'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ICT 기술로 극복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연(0437)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화이글스의 황금 막내! 정우주 선수의 인터뷰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정독했습니다. 올해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 중인데 그래서 더 반갑고 대전에서 한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 2026년 대전 근무도 설렙니다. 한화이글스, 올해는 우승 가즈아!



김○지(1424)

'새해 식탁을 채우는 세계 요리'를 읽으며 나라별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한 요리들이 많지만, 언젠가 직접 그 나라를 여행하며 꼭 맛보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되었어요.



이○성(6050)

'물로 하는 건 다하는' 경기동남권지사 직원분들의 단합된 모습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경기동남권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전○혁(1561)

동해시를 사보에서 다시 만나 무척 뭉클했습니다. 젊은 시절 추암 촛대바위 인근에서의 추억이 떠올랐고, 새로 생긴 묵호등대 해변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시, 꼭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치약을 칫솔에 짠 후에 물을 묻히는 것은 안 좋을까? 정답은 YES!

치약을 짠 뒤 물을 묻히면 거품이 빨리 나 '잘 닦이는 느낌'은 나지만, 실제로는 치약 성분이 물에 의해 희석될 수 있다. 가급적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양치하는 것이 좋다.

강○우(6272) 김○아(0743) 이○(3281) 홍○호(0757)
권○현(3576) 박○정(6321) 임○연(3803)
김○문(5120) 오○경(3175) 정○진(8024)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카드지갑 5명

김○숙(9281)
김○원(2994)
손○영(5390)
오○호(5382)
황○성(1463)

※ 2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방울이 카드지갑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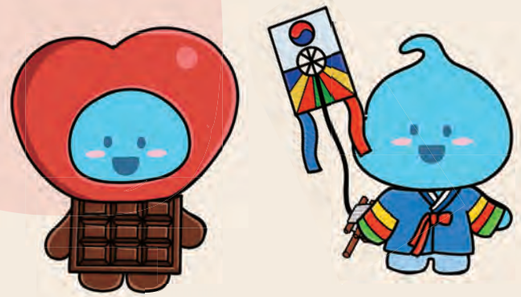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2월 20일
선물 발송 2월 28일

경품
방울이 카드지갑
(5명)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최애 게시글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블로그 댓글달기 이벤트

한국수자원공사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블로그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전체 게시글 중 최애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이벤트 참여하기

참여 방법

① 게시글 중 최애 게시글에 댓글 남기기
② 댓글 인증샷 찍기
③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방울이 뱃지 4종 세트 (10명)



올리브영 5천원 상품권 (50명)



접수 마감일

2월 25일

당첨자 발표

3월 중 블로그에서 발표 예정